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대림절]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47장** **다같이**

1.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2.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3.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 보면서 모두 맘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4.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후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느헤미야 7장 1~4절** **인도자**

설 교 **“지도자를 세우라”**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말씀과 찬송,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3. 거룩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날로 성장케 하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도자를 세우라

느헤미야 7:1-4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 재건자 명단이 나와 있지만, 7장에는 바벨론 귀환자들의 명단이 실려 있다. 과거 귀환자 명단을 제시하는 이유는 할 일을 적절히 맡기기 위함이다. 그리고 과거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좋게 기념해 주기 위해서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 인도했고 성전을 재건했다. 2차는 에스라가 이끌었고 종교 개혁을 이끌었다. 3차는 느헤미야가 이끌었고 성벽을 재건했다. 느헤미야에 의해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지만, 그에게는 중요 업무가 남아 있었다. 조직을 구성하고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다. 결국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예루살렘 성벽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율법을 세우기 위한 조건일 뿐이다.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세웠다. 그리고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그 뒤 느헤미야는 인력과 재정을 조직화했다. 영적 지도자는 잠재적인 지도자를 개발해야 한다. 느헤미야는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치리하도록 위임했다. 참된 지도자는 자기 혼자 앞서지 않고 더불어 일할 줄 아는 사람이다. 참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일을 성취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도자를 발굴할 때는 평소에 맡겨진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본다. 여러 상황에서 검증된 리더,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일을 맡는다. 차세대 지도자는 부수적인 위대함이 아니라 본질적인 위대함을 보고 세워야 한다. 하나니와 하나냐의 학력, 경력, 재산,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운 성품이 중요했다.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도행전에도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나온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성안에 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구 재분산 정책을 통해 예루살렘 전역에 사람들이 살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는 정책을 펼쳤다. 민장들과 백성들을 가족 단위로 계수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힘을 합쳐 성의 재원을 마련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했다. ▶우리도 리더를 키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을 키우자, 사람을 아끼자.” 지도자는 남의 성공을 인정하고, 남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남의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세워준다. 지도자의 위험은 다른 사람들의 공을 가로채는 것이다. 남의 공을 가로채는 것은 교만이다. 사역보다 사람 중심,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동역 관계에 있어서 실패의 원인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다. 처음에는 협조 관계로 시작하다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처럼 원수 관계로 변질된다. 또한 지도자의 위험은 위임하지 못하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이다. 혼자서는 일을 잘하지만 함께 일하는 동역에는 약하고, 다음 세대에 가서는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 동역-멘토링-코칭이 필요하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동역 관계를 볼 수 있다. 모세-여호수아, 여호수아-갈렙, 엘리야-엘리사, 요나단-다윗, 느헤미야-하나니와 하나냐, 세례요한-예수님, 바나바-바울, 바울-실라, 바울-디모데. 세상에서 위대한 유산은 많은 재산을 남겨 주는 것보다 사람들의 잠재된 재능을 계발해 주는 것이다. 리더십 개발을 위해 자신이 리더로 세워지게 된 과정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①누군가 내 잠재력을 발견했다. ②누군가가 내게 투자했다. ③누군가 나를 믿고 책임을 맡겼다. 예수님도 차세대 리더십을 개발하셨다. 기도로 준비하고,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가르치고 양육하시고, 열정과 확신을 불어 넣으시고, 비전을 보여 주시고, 위탁하고 지도하시고, 믿고 보내셨다. 차세대 리더들이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리더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다.